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리그 개막전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를 찾은 KIA 팬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2년 연속 개막전 승’ KIA, 응원 열기 경기장 가득 채웠다



챔피언스필드서 NC와 첫 경기...2만500석 전석 매진
 “한국시리즈 불패신화 여운...올해도 V13 이뤄내길”

“올해도 홈 경기장에서 가을야구를 즐기고 싶어요. KIA타이거즈 ‘V13’ 가즈아!”
 지난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타이거즈와 NC다이노스와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개막전. 경기장 인근은 입장하려는 팬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겨우내 프로야구 개막을 기다렸던 팬들은 검은색과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

니며 개막 분위기를 만끽했다. 일부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중앙출입구 인근에 배치된 2024시즌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와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한 곳에서는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 1·2차전 MVP인 전상현과 양현종의 팬 사인화도 진땀 팬들의 기쁨을 더했다.
 이날 경기장은 2만500석이 매진될 정도로 많은 관중들이 몰렸다. 2014년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

홈 개막전 매진 6번 째(2014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4년, 2025년)다.
 특히 이날은 KIA의 지난 시즌 12번째 우승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먼저 지난해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우승반지 전달식이 열렸다. 이어 12번째 우승 엠블럼을 공개하는 우승 엠블럼 제막식을 진행. 1루 측 상단에는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 엠블럼이 추가돼 총 12개의 우승 엠블럼이 걸렸다. 또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기념하는 특별한 승리 기원 시구 행사도 치러졌다.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 우승을 결정지은 5차전 시구자였던 배우 박신혜가 다시 한번 개막 시리즈에서 시구자로 나섰다. 이로써 박신혜는 KIA타이거즈의 2024시즌 마지막과 2025시즌의 시작을 함께하게

됐다.
 박신혜는 이날 “KIA타이거즈 홈 개막전 시구자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다”면서 “제가 시구한 날은 항상 KIA가 승리했다. 그간의 기운을 담아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애국가가는 타이거즈 전편으로 잘 알려진 가수 이보람이 불렀다.
 이 밖에 걸그룹 스테이씨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지며 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지인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한 김희영씨(34)는 “겨울동안 야구 개막만을 기다려왔는데 다시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지난 시즌 통합 우승하며 거리에서 페이드를 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올 시즌 역시 선수들이 부상 없이 꾸준히 경기를 뛰면서 V13을 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온 40대 이모씨는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불패신화를 이어갔던 짜릿한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며 “가족들이 양현종, 나성범 선수 팬인데 올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승까지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이날 KIA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NC를 상대로 9-2로 승리했다. 감독으로 정규리그 두 번째 해를 맞이한 이범호는 2024년에 이어 올해 역시 개막전 승리를 선물했다.
 이범호 감독은 “개막전을 맞아 팬분들이 민원 관중으로 화답해주셨다.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무난한 출발’ KIA, 개막 2연전서 반타작

2차전 NC에 4-5 석패
 양현종, 5이닝 4실점 부진
 이우성 투런포·한준수 솔로포



이우성

KIA타이거즈가 2025시즌 프로야구 개막 2연전을 반타작으로 마감했다.
 KIA는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개막전 2차 경기에서 4-5로 패배했다. 앞선 1차전에서 9-2 승리를 거뒀던 KIA는 이로써 개막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KIA는 이날 타순을 박찬호(유격수)-최원준(중견수)-나성범(우익수)-위즈덤(1루수)-최형우(지명타자)-김선빈(2루수)-이우성(좌익수)-한준수(포수)-윤도현(3루수)으로 짰다.
 선발 투수로는 양현종이 나섰다. 총 84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은 5이닝 6피안타(1피홈런) 4볼넷 5탈삼진 4실점(4자책)으로 부진했다. 최고구속은 146km였다.
 양현종은 1회초 상대 선두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후속타자 김주원은 땅볼로 처리했고, 손아섭은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그 사이 상대 3루 주자가 홈으로 질주했지만, 포수에게 태그아웃 당하며 실점 없이 이닝이 마무리됐다.
 2회초에는 대형 위기가 찾아왔다. 상대 선두타자에게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맞았다. 상대 박건우 안타 이후에는 권희동에게 볼넷을 내줬다. 무사 1·2루 상황 상대 서호철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김형준에게 좌전 안타를 맞으면서 추가 실점했다. 이어 뜬공과 삼진으로 위기를 넘겼다.
 KIA는 2회말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선두타자

김선빈이 중견수 앞 안타를 때려냈다. 타석을 이어 받은 이우성은 상대 2구째 151km 직구를 걸어 올려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동점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양현종은 3회초 두 타자 연속 뜬공을 기록했다. 후속타자 데이비슨에게는 안타를 내줬지만, 박건우를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4회초 또 다시 실점이 나왔다. 상대 선두타자에게 볼넷을 내줬다. 후속타자 연속 삼진 이후에는 몸에 맞는 볼을 기록하며 2사 1·2루가 됐다. 상대 박민우는 우측을 완전히 가르는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경기는 2-4로 격차가 벌어졌다.
 5회초에는 상대 데이비슨에게 안타를 내줬지만, 땅볼과 병살타로 이닝을 막으면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KIA는 6회초 상대에게 1점을 더 내준 뒤 6회말 득점을 뽑아냈다.
 선두타자 위즈덤이 때린 공이 외야 중앙 쪽으로 높이 뿔었다. 그러나 상대 수비 과정에서 좌익수와 중견수가 엇갈리면서 한 번에 포구하지 못했고, 위즈덤은 2루 베이스를 밟았다. 최형우 삼진 이후에는 김선빈이 타석에 올라 좌전 적시타를 폭발시켰다.
 이후 득점 없이 이어진 경기는 9회말 1사 상황 타석에 들어선 한준수가 상대 3구째 146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폭발시켰다. 하지만 추가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4-5 KIA 패배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김도영, 왼쪽 햄스트링 손상...2주 후 재검진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KIA는 23일 “전날 NC다이노스와의 개막 1차전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한 김도영의 1차 검진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소견을 받았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2주 후에 재검진을 할 예정이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엔트리에서 말소했다”고 밝혔다.
 김도영은 지난 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와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개막전 경기에서 2번타자 겸 3루수로 출전했다.
 KIA가 1-0으로 앞선 3회초 1사 상황. 타석에 오른 김도영은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하지만 1루 베

이스를 돌아 다시 귀루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 상태 점검을 위해 달려온 트레이너는 김도영이 경기에 뛸 수 없다고 판단, 윤도현과 교체했다.
 이후 김도영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뒤 MRI 검사를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 손상 소견을 받았다.
 김도영의 정확한 복귀 시점은 2주 뒤 재검진을 한 후 정해질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전남 공사 4명, 선발전서 나란히 태극마크

이승윤·안산·김수린·남수현...2차 평가전서 세계선수권 티켓 가려

이승윤(광주 남구청),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 김수린(광주시청)과 파리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이 2025 양궁 리카보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배점합계 44.5점을 기록하며 8위로 대회를 마쳤다.
 광주·전남 남자선수 유일하게 태극마크를 단 이승윤은 “광주 남자양궁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안고 초심으로 돌아가 순위평가전까지 최선을 다해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무대에 꼭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남자부에서는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는 서민기(현대제철)가 파리올림픽 3관왕 김우진(청주시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자부에서는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이 국가대표에 복귀했다.
 안산은 배점합계 52.5점을 기록하며 4위에 자리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안산은 “광주은행 유니폼을 입고 태극마크를 달아 기쁘다”며 “지난해 실패를 거울삼아 부족한 1%를 메우려 마음을 다잡고 노력했다. 광주

양궁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남은 기간 좋은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자부 5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된 김수린은 “광주시청이라는 좋은 팀에 입단해 태극마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전진했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각오로 남은 순위평가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여자부에서는 임시현(한국체대)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종합 배점 70점으로 3년 연속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엔 선발된 남녀 국가대표 16명은 23일 인천선수촌에 입촌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할 남녀 각 3명은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예선 진흥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최종 1차 평가전과 4월 14일~18일 원주양궁장에서 열리는 최종 2차 평가전을 통해 확정된다.
 1985년 서울, 2009년 울산에 이어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전남 공사 4명이 2025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다. 왼쪽부터 임동일 순천시청 감독, 남수현, 김수린, 안산, 이승윤, 이현창 남구청 감독, 최승실 광주시청 감독, 김성은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감독. 사진제공=광주시양궁협회